

# T-DMB, 유럽 찍고 中·중남미로

## 독일 월드컵 기점 확대 '관심' ... 'BM개발' 관건

지난 12월 1일, 지상파DMB 서비스가 개시됨으로써 우리나라는 위성DMB를 포함, DMB를 '세계 최초'로 서비스하는 국가가 됐다.

이미 오래 전부터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는 국내 차세대 IT먹거리로 손꼽혀온 부분. 국내 상용화(와 활성화)를 발판으로 삼아 해외시장을 선점해나가겠다는 게 국내 입장이다.

실제 그동안 지상파DMB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이동전화 사업자의 유통 참여가 KTF와 LG텔레콤을 필두로 1월 1일부터 시작됨으로써 지상파DMB 진영을 고무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글 | 박영주 기자(모바일타임즈, yjpark@cellular.co.kr)



이미 지난해부터 국내 모바일방송 기술인 지상파 DMB(T-DMB)의 가시적인 해외수출 성과도 두드러졌다. 이는 정보통신부의 강력한 'IT 마케팅'의 결과로서 유럽을 시작으로 중국과 중남미 등지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 T-DMB, 獨 월드컵에 주목

지상파DMB는 기존 유럽의 DAB(디지털 오디오 방송) 설비를 그대로 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럽지역은 대표적인 수출대상지역으로 꼽힌다. T-DMB 자체 DAB에 비디오 데이터(영상)를 부가한 것이기 때문. 이로 인해 국내에서도 유럽을 타깃으로 한 다양한 홍보를 전개했다.

무엇보다 지상파DMB가 유럽시장에 진출여부를 타진하기 위해 현재 가장 큰 계기로 기대되는 것이 바로 2006년 6월 열리는 '독일 월드컵'이다. 독일에서는 월드컵 시청을 모바일화하기 위해 이미 다수 사업자가 지상파DMB 시험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상태.

독일의 네트워크 사업자인 T-시스템(T-System)은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12개시에서 시범서비스를 추진 중이다.

이 업체는 이미 지난해 3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세빗 2005'에서 부스를 통해 T-DMB를 시연한 바 있다. 당시 T-시스템 관계자는 서비스 도입 방침을 분명히 했다.

T-시스템은 이미 지난해 열린 월드 DAB(World DAB) 총회에서 T-DMB 서비스를 위해 정부에 주파수 배정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히기도 했다.

독일 남부 바이에른 주의 방송정책기구인 BLM은 올 1월부터 레겐즈부르크(Regensburg)시에서 실험방송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장비 및 단말기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 프로젝트는 2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BLM이 독자 추진한다.

BLM은 T-DMB 홍보를 위해 올 6월, 독일 월드컵 기간 중 뮌헨에

서 시범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시범 서비스는 10~12주 정도 진행될 예정이며, 민헨에 설치될 월드컵 미디어센터에 상주할 전세계 저널리스트들



을 대상으로 1000대 이상의 단말기를 보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EU펀드를 받아 전개되는 범EU 프로젝트 성격으로, EU펀드를 받게 되면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주변국 국경지역에서 실험방송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랑스는 지난해 10월부터 네트워크 사업자인 VDL과 TV방송사인 TF1이 파리에서 지상파DMB 실험방송을 추진중이다. 실험방송 기간은 6개월로 파리지역을 대상으로 단말기 100대 정도를 통해 기술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게 된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VDL은 T-DMB가 기존 DAB 주파수 및 방송설비를 이용할 수 있고, DAB 기술의 안정성과 단말기 보급 용이 등을 이유로 DVB-H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프랑스는 현재 DVB-H 프로젝트를 동시 진행 중이다.



지난 11월 16일에는 영국 앤드류 왕자(Duke of York)가 방한, 2006년 4월부터 영국에서 한·영 공동으로 지상파DMB 실험방송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DMB 실험방송에는 전자통신연구원



(ETRI)과 삼성, LG, 퍼스텔, 온타임텍, 픽스트리 등 한국기업과 BT, 오렌지, BBC, 채널 4, 프론티어 실리콘 등 영국기업이 참여해 한국형 T-DMB를 선보이며, BT 라이브타임(BT Livetime)이 이미 제공 중인 고급패킷 IP기반 이동방송서비스와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자리에서 앤드류 왕자는 “이번 시험방송을 위해 영국의 입증된 기존 DAB 기반시설을 사용해 시험방송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비교, 평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멀티미디어 기술을 이동 단말기로 수신,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멕시코 협력, 교두보 확보

중국의 지상파DMB 채택 움직임도 가시권 내에 들었다.

중국 북경 위에롱이 1월부터 2개의 비디오 채널로 T-DMB 실험방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중국 상해는 상해 SMG그룹과 상해 동방명주에서 T-DMB 서비스 주도권을 놓고 경쟁중인 상태.

상해 동방명주는 독일 RS 송신기 2대를 설치 완료했으며, 오디오 엔코더 및 앙상블은 라디오스케이프(Radioscape)사 장비를 구매했다.

중국 광둥지역에서는 광주TV방송국의 주축으로 구성된 남방미디어그룹이 기존 T-DMB 서비스를 제공중인 불산 라디오방송국(위에팡)과 주도권을 놓고 경합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남방미디어는 투자회사인 'Li Xin'(立信)과 T-DMB를 추진중이다.

멕시코와의 지상파DMB 협력 체결은 이를 기반으로 중남미 진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월, 호르헤 알바레스 호쓰(Jorge Alvarez Hoth) 통신교통부차관과 IT회담을 갖고 양국의 IT협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논의한 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자리에서 DMB 협력약정에 서명, 지상파DMB 협력을 본격화 했다.

이번 협력약정은 지상파DMB, 데이터방송, EDOCR(단일채널중계기) 등 우리의 앞선 디지털 방송 기술들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상호 협력을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멕시코는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지역의 맹주로 인정받는 국가로서, 멕시코에 대한 성공적인 진출은 향후 한국 지상파DMB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전시회 시연 '효과 백배'

해당 지역에서 열리는 관련 전시회의 지상파 DMB 시연도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9월,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IFA(Internationale Funkausstellung)2005'에서는 정보통신부 주관하에 독일연방공영방송기술연구원(IRT)의 초청으로 ETRI, 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퍼스텔, 픽스트리, 온타임텍 등 한국 기업들이 참가, 국내 지상파 DMB를 시연, 많은 독일 관련자들로부터 극찬을 이끌어 냈다.



IRT부스에 마련된 국내 지상파DMB 코너에는 국내 업체들이 개발한 차량용, 휴대폰겸용, 노트북 등 다양한 지상파DMB 단말기들을 통해 독일의 ARD 및 ZDF 방송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해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시연을 위해 IRT는 베를린 시내에 위치한 방송 송출타워를 통해 베를린 전역에 지상파DMB를 송출, 기존의 VHF 대역 뿐만 아니라 독일에서 상대적으로 주파수 사정이 좋은 L-Band 대역에서도 시연함으로써 독일내 상용서비스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또한 같은 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유럽 최대 방송기기 전시회인 IBC(International Broadcasting Convention) 2005에서 지상파 DMB가 시연돼 큰 인기를 얻었다.

이번 시연은 World DAB 포럼이 정보통신부에 공동시연을 요청해 이루어진 것.

네덜란드 DAB(디지털라디오방송) 방송사업자인 dbEurope은 이번 시연을 위해 픽스트리의 방송장비를 이용해 IBC가 개최되는 라이(rai) 전시장에 위치한 송출타워를 통해 네덜란드 방송 콘텐츠를 직접 송출했다.

지난해 10월에는 CIRT(멕시코 라디오·TV 산업위원회) 주최로 멕시코에서 열린 'ExpoCIRT 2005'에서 지상파DMB 시연회를 가져 멕시코 정부, 방송사 고위인사 및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응을 얻은 바 있다. **K**